

신령스러운 봄 풀, 쑥



김승일

동아대학교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신령스러운 봄 풀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러나 금년에도 봄기운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찬 바닥을 뚫고 올라와 여기저기를 파랑게 수놓고 있는 쑥을 볼 수가 있다. 참 불가사의한 생명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한 상큼한 쑥잎을 뜯어다 된장을 듬뿍 푼 국물에 넣어 쑥국을 끓여 마시게 되면 입맛을 잃기 쉬운 봄철에 식욕을 자극해 줌은 물론이고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해줘 봄의 나른함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식물인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겨주던 귀한 구황식량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쑥의 효능 때문에 관련 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어린 시절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쑥 잎을 일 부러 밟아 뭉개고 다녔던 미안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아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쑥이 ‘의초’ 또는 ‘천연초’라고 불리는 것은 참으로 어울리는 작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쑥의 유래와 어원

쑥은 산, 들, 길옆, 논밭 두렁, 빈 집터 등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면 어김 없이 올라와 아무데서나 ‘쑥쑥’ 자란다고 해서 ‘쑥’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되었을 때도 쑥이 제

일 먼저 올라와 그 폐허를 ‘쑥밭’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생명력이다.

그러나 ‘쑥’이라고 불리게 된 어원을 살펴보면 그러한 말풀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몽고에서는 쑥을 ‘수이’라고 부르고, 한반도에서는 ‘쑥’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서는 ‘후츠’ 혹은 ‘훗’이라고 불리고 있고, 오키나와에서는 ‘후우치’라고 불린다. 이러한 음가의 변화를 보면 ‘쑥’이라는 말의 어원이 다른 단어처럼 북방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과 오키나와에 전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쑥의 원산지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마천이 『사기(史記)』에서 “발해의 삼신산에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과 신선이 많다.”고 기록하면서, 이 중에 ‘쑥’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이 말이 증명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쑥은 국화과의 다년생 풀이다. 세계적으로는 25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약 30여 종이 보고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그저 참쑥, 물쑥, 인진쑥 등 몇 가지만 알아도 다행일 듯하다.

쑥은 학명으로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라고 하는데 ‘*Artemisia*’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고, ‘*princeps* var. *orientalis*’는 ‘동방의 귀공자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귀공자’ 같은 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쑥의 역사

쑥의 원산지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기원을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한다. 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이다. 환웅(桓雄)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신령스러운 풀인 마늘 20통과 쑥(靈艾, 영애) 한 자루를 주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일렀다. 곰은 이 말을 그대로 지켜서 21일 만에 웅녀(熊女)가 되었으며 나중에 환웅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는 건국 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또 환웅이 신시를 건설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마늘과 쑥으로 병을 다스렸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 옛날부터 귀한 약초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실려 있는 ‘사자족애’(獅子足艾, 사자발쑥, 잎의 모양이 사자 발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라는 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 5월에야 강화도에서 발견되어 강화도의 지역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스쳐 지나간다.

은 지병에 3년 묵은 썩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썩은 예전부터 우리 생활에 많은 공헌을 해 준 귀중한 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세계 속의 썩 이야기

썩의 원산지가 광활하다 보니 썩과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중국 경우, 주(周)나라의 유왕(幽王)이 너무 방탕하므로 이를 우려한 신하들이 3월의 첫 뱀날(上巳日, 상사일) 곡수연(曲水宴) 때 썩떡을 바쳤다.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하게 다스려졌으므로 삼진날(음력 3월 3일)에 썩떡을 해먹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대중에게 전해져 삼진날의 썩떡은 수명을 연장시키고 사기(邪氣)를 쫓는 액막이의 효력이 있다고 믿게 되어, 벽사(辟邪, 귀신을 물리침)에 이용하는 풍속으로 이어져 3월(음력)의 시식(時食)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습은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삼진날에 썩떡을 해먹는 것도 여기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와 5월 5일 썩을 뜯어 인형을 만들어 문 위에다 걸어놓으면 요기를 막아준다는 풍속으로까지 발전했다. 6세기경에 나온 중국 호남과 호북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에 바로 이런 기록들이 있다. 이러한 단오절 풍습 또한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풍양속의 전래와는 달리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한국의 단군신화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신화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길림성은 ‘조선족 문화 풍경지구’를 만들면서 선녀봉이라는 봉우리에서 ‘백의선녀상’이라는 ‘웅녀상’을 세워 놓았는데 오른쪽에는 마늘, 왼쪽에는 썩을 들게 하여 우리의 성스러운 신화를 호도하고 있다. 이 ‘웅녀상’ 아래에 있는 설명문을 보면 “환웅족이 만주일대와 고조선 강역(疆域)에서 토착세력인 웅녀족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는 환웅족을 만주 지역에 새로 들어온 민족으로, 웅녀족을 이 지역 토착민으로 보고 웅녀를 조선족의 시조모(始祖母)라 하여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속내를 보이려 한 것이다. 소위 ‘동북공정’의 일환인 것이다.

아직 학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중국학자들의 치기 어린 연구결과를 그대로 현장에 접목하고 있는 중국 행정가들의 행태를 보면서, 현재의 중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 같아 이웃나라인 우리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을 베풀어 주는 ‘썩’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和諧)와 공생(共生)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